

정읍 김 동수씨 집

김 광 언

- | | |
|-----------|---------|
| 1. 머리말 | ③ 안 행랑채 |
| 2. 연혁 | ④ 안채 |
| 3. 구조 | ⑤ 안 사랑채 |
| 4. 건축의 환경 | ⑥ 사당 |
| 5. 기능 | ⑦ 호지집 |
| ① 바깥 행랑채 | ⑧ 생활풍속 |
| ② 사랑채 | |

1. 머리말

全北 井邑郡 山外面 五公里에는 원형을 거의 그대로 지닌 이조 중기의 상류주택(소유자 金東洙씨)이 있다.

이 주택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느 고 가옥에 못지 않은 큰 규모의 것이며, 건물의 평면 배치도 특이할 뿐더러 건물의 기능, 造景的인 환경 등이 전라도 지방 특유의 생활양식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씨 집의 기능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경상도 지방의 가옥의 기능과 비교가 될만한 것에 대하여는 간단한 설명을 붙이었다.

김 동수씨의 가옥이 있는 마을은 전북 태인읍에서 동남방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태인에서 七寶面을 거쳐 산의면으로 향하는 街道의 좌측에 위치하며 면 소재지까지는 2km 못미치는 지점이다.

2. 연 혁

司馬榜目に 의하면 이 건물의 현 소유자인 김씨의 6대 선조(入鄉祖이기도한)이며 이 집을 처음 지은 金命寬(光山 金氏)은 1758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48세(1805년)에 생원이 되었다. 口傳에 의하면 그는 약관 17세에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10여 년 만에 완공을 보았다 하므로 이를 환산하면 1784년으로 되며 지금으로부터 187년 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씨 집 오른편의 가옥은 명관의 아들인 相洪의 아우 相河가 본집을 지은 30년 뒤에 착공하여 역시 10여 년 만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이 집의 안채가 지난 2월 철거될때에 나타난 상량에 崇禎四甲午라는 기록이 있었다 하는데 이것은 1834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해 보면 오차의 한계는 10여 년에 불과하므로 김씨집이 190여 년

전에 건축되었다는 사실은 비교적 정확한 것이라 생각된다.

명관은 26세가 되던 1794년에 아들 相洪을 낳았다. 상홍은 16세에 생원이 되었으며 뒤에 回榜에도 참례하였다.

김씨 집은 이때에 가장 흥왕하여 1년 추수 곡식이 천 이백 석(石)에 이르렀다. 상홍은 20세이던 1815년에 아들 箕豊을 낳았으며 그는 41세이던 1855년에 생원이 되었다.

김씨 네의 재력은 그의 대에 이르러 많이 줄었다. 대원군이 경복궁의 중건을 위하여 안간힘을 기울이던 때 그에게도 願納錢의 납입 의뢰가 있었다.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그는 18세 나던 외손에게 액수를 일러주면서 관원이 내미는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외손은 조부의 낯빛이 심히 불쾌하던 것을 기억하고 願納錢의 願을 怨으로 써 놓았다. 결국 이 일을 무마시키는 데에 많은 재력이 소모되었던 것이다.

기풍에게는 在幾, 在鎬, 在疇의 세 아들이 있었으며 그 중 막내인 재주는 箕庸의 양자가 되었다. 그는 21세이던 1874년에 생원이 되었다.

이로서 김씨 네는 4대를 이어서 생원이 되었다.

재기는 아들 玉鉉을 두었으며 현 가옥 소유자인 김동수 씨의 선친인 永錫은 그의 아들이다.

김씨는 2남 2녀를 두었다.

현재 이 집에서는 김 동수씨 네외가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김씨는 임야 50여 정보와 밭 6,000여 평을 가지고 있다.

3. 구 조

김씨 집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넓은 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1500여 평의 대지중 어느 한 곳도 비탈진 곳이 없다. 건물은 동서 65m, 남북 73m인 장방형의 담으로 둘러 있고 주건물들은 동남향으로 앉았다.

평면구조를 안 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 채의 우측에는 사당채가, 좌측에는 안 사랑채가 있으며 전면으로 디근자형의 안 행랑채가 양날개로 안 채를 감싸듯이 서 있다. 안 행랑채 전면 우측에는 사랑채가 섰으며 이 건물 앞에 역시 디근자형의 바깥 행랑채가 세워져 있으므로 안 채는 결국 이중의 행랑채로서 호위되어 있는 셈이다.

이 집의 각 건물은 대지의 전면인 남쪽으로 타아 서 있으며 대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안 채의 후원에는 예전부터 남새밭(菜田)을 일구어 오고 있다.

안 사랑 사당 전면에는 세 간의 방아실채가 그리고 방아실채의 남쪽에는 연자매가 설치되어 있었다.

김씨 집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왔으며 다만 바깥 행랑채 좌측에 있었던 머슴 변소와 역시 바깥 행랑채 우측 담 밖에 있었던 또 한 채의 바깥 변소 및 안 행랑채의 좌측 세 간과 우측 한 간 등이 철거 되었다.

건물 각 채의 구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바깥 행랑채는 좌우 양 끝에서 각각 두 간씩을 북쪽으로 달아 사랑채를 감싸듯이 세운 디근자형 건물이다.

이 채의 架構는 卅三梁이며 도리는 모두 납도리이다. 기둥은 일변 20여cm의 方柱를 사용하였

다. 지붕은 맞배이며 처마는 흘처마이다.

대문을 중심으로 바깥 행랑채의 평면 구조를 살펴보면 좌측으로 각각 한 간씩의 문간방과 대청 그리고 문간 사랑방이 있으며 이에서 북으로 이어 역시 각각 한 간씩의 문간 사랑방(아랫간)과 정재¹⁾가 달려있다.

대문의 우측으로는 한 간의 마판²⁾ 세 간의 곡간 그리고 각각 두 간씩의 마부간³⁾과 아래채 대청이 있으며 이에 이어서 한 간의 정재가 있고 다시 북으로 두 간의 아래채 방이 달려서 디근자형 건물의 마지막 획을 이루고 있다.

대문은 솟을 문이며 높이는 240cm, 한쪽의 너비는 20cm, 두께는 3cm이다. 문턱은 가운데가 낮아지고 좌우 양 끝이 높아지도록 弧形으로 깎아 놓았는데 이 집의 사당의 대문을 제외한 중문, 안대문의 문턱은 모두 이와 같은 모습이다. 대문 위에는 홍살을 세웠으며 전면 우측에 승마석을 놓았다. 대문 용마루의 좌우 양끝과 추너마루 및 합각마루에는 鬼面의 망와를 얹었다. 망와는 이곳 뿐아니라 각 건물에는 물론 외각 담 모서리에도 있으며 그중 안채의 것이 가장 전형적인 귀면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전면 다섯 간 측면 세 간의 일자형 건물로 아담하고 단아하며 거의 완전한 균형미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의 民家의 건축물로서는 매우 뛰어난 것이다. 사랑채의 평면형을 살펴보면 두 간의 대청 우측에 역시 두 간의 사랑방이 놓이고 이 방의 아랫간에서 북으로 한 간의 사랑 아랫방이 달려서 이 부분의 사랑채 후면이 반 간 가량 북으로 돌출되었다. 대청과 사랑방 전·후면에는 퇴마루를 내었으며 전면의 퇴마루 우측 끝에는 퇴마루 너비만한 북직이방이 있다. 이 방의 북쪽에는 정재가 있고 이에 이어서 반 간 넓이의 공간을 두었다.

대청의 바닥은 우물 마루이며 천정은 架構의 형식이 그대로 들어난 연등천정이다. 대청의 들보는 홍예식으로 굽었으며 장보이므로 세 간 너비의 사랑채를 건너질러 있다. 중보 위에는 사다리꼴의 대공을 세웠고 이 위에 중도리를 얹었다. 그리고 중도리의 서측에는 너비 40cm의 눈썹천정을 가설하였다.

대청과 전면의 퇴마루 사이에는 각각 3분합과 4분합 띄살문을 달아 간막이를 하였으나 필요할 때에는 서까래 끝에 달린 들쇠에 걸어 通間이 되게 하였다. 퇴마루 역시 우물마루이며 좌측 끝과 첫 기둥 사이에는 니은자가 되게 난간을 들렀다. 사분합 띄살문이 달린 중방 위에는 溪山幽居라 쓰인 현관이 걸려있다.

현관은 사랑방 옷간에 竹仙이라 쓰인(金秋史의 글씨)것이, 아랫간의 장지문이 달린 중방 위에는 春暉라 쓰인 것이 있다. “춘고”는 김 동수씨의 부친인 김 영석의 아호이며 그를 위하여 義親王 李瑠公이 쓴 것이다. 사랑방의 천정에는 소란 반자를 설치하였다.

현관은 사랑방 아랫간 전면에도 있으며 蒼霞漁樵라고 쓰여있다. 이 방의 동측벽 우측에는 벽장(높이 75cm, 길이 150cm, 너비 53cm)이 있다.

사랑방 아래 옷간과 정재 상부에는 다락이 설치되어 있다.

다락 바닥에서 중도리까지의 높이는 157cm이어서 중키의 사람은 허리를 심히 구부리지 않고도 걸어들 수 있다. 정재에는 남측의 북직이방과 서측의 사랑방에 불을 넣기위한 아궁이를 두 곳에 내

- 1) “정지”가 옳을 것이나 여기서는 이렇게 불리운다.
- 2) “마구간”이 옳을 것이나 여기서는 이렇게 불리운다.
- 3) “마구간”이 옳은 것이나 여기서는 이렇게 불리운다.

었다. 불꽃을 돌아나온 연기는 북직이방 우측의 굴뚝과 사랑 아랫방 후면에 세운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사랑 아랫방을 위한 아궁이는 따로 없으며 따라서 사랑방 아래, 옷간과 사랑 아랫방은 한 아궁이에서 불을 때어 난방이 되도록 하였다. 정재 북쪽의 반간 넓이의 공간에는 예전에는 높은 마루를 놓아 물건들을 두었었다.

사랑채는 18cm 높이의 축대 위에 세워졌으며 축대의 주위로는 높이 17cm 너비 15cm의 화강석을 일매지게 깎은 댓돌을 놓았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부연을 달지않은 흘처마이다. 기둥은 일변의 20cm의 방주를 세웠으며 주초는 전면의 것은 네 귀가 반듯하나 나머지 것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割石을 사용하였다. 처마도리 중도리 종도리는 모두 납도리로 되었다.

사랑채의 망와는 귀면이 약화된 것으로 입은 없으며 이마에 흑을 달고 눈동자에는 점을 붙여서 입체감을 나타낸 것이다.

안 행랑채는 디근자형 건물로 안채를 감싸는듯이 서 있다. 평면배치는 안 대문을 중심으로 보면 좌측으로 각각 한간씩의 안 행랑방, 정재, 안 변소 등이 이어 달렸다. 원래 안 변소는 두 칸이었으며 이 끝에서 북으로 꺾여 세 칸의 곡간이 있었으나 퇴락해서 현재는 안 변소 한 칸과 세 칸의 곡간은 철거 되었다.

대문 우측의 한 칸은 출입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한 칸은 매간이었으며 이어서 두 칸의 아래 곡간이 있다. 그리고 이 곡간 우측으로는 북쪽으로 세 칸의 옷 곡간이 달렸다. 옷 곡간에 이어 한 칸의 방과 반간의 정재가 있었으나 이것 들은 年前에 철거 되었다.

안 행랑채의 架構는 평삼량으로 되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처마는 흘처마이고 들보는 모두 홍예식으로 굽은 것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모두 방주이다. 주초는 상부가 평탄한 자연석을 그 생긴 대로 대강 다듬은 것을 놓았다.

안 대문 한쪽의 너비는 90cm이며 높이는 195cm, 두께는 2.5cm이다. 안 대문 밖 왼편에는 길에 4m 너비 1.5m 높이 60cm의 두던을 쌓고 이곳에 주둥이의 지름이 각각 45cm가 되는 오줌독 네 개를 뒀었다.

행랑방의 천정은 서까래가 노출된 샷갓천정이고 바닥은 흙바닥이며 이 위에 자리를 깔았다.

정재의 전면은 개방되었으며 행랑방쪽에 아궁이를 내었다. 굴뚝은 행랑방 바깥 담쪽에 설치되었다.

정재와 안 변소 전면의 중방과 옷 인방 사이에는 홍예식으로 심히 굽은 나무를 놓아 옷 인방을 받히고 있다. 이것은 아취형으로 나란히 이어져서 별스러운 멋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안 대문의 전면이 개방되어 있으나 원래는 대문의 안 마당 쪽에 가리개를 세워서 안 채가 노출되는 것을 막았으며 따라서 우측의 한 간을 돌아서 드나들어야 하였다.

매간의 전면과 안 대문쪽의 측면은 개방되었다.

안 채는 디근자형의 건물로 같은 모양의 안 행랑채와 마주 서 있다. 평면배치는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각 큰 방과 옷 방을 두었으며 이들 방의 남쪽에는 각각 정재가 달렸다.

대청의 전면은 세 칸이며 측면은 한 칸 반이다. 전 후면에는 각각 반 간 너비의 퇴마루를 달았다. 대청 전면의 퇴마루 좌우측 끝에는 각각 반 간 넓이를 줄여서 전면과 퇴마루 쪽의 측면을 간막이 하였으므로 대청에서 불 때에는 두 귀에 빨이 달린 셈이며 따라서 퇴마루의 실면적은 2칸 밖에 안된다. 대청 좌우측의 전면에 이와같은 공간을 설치한 것은 큰 방과 옷 방의 채광을 돕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청쪽으로 낸 문을 여닫기 위한 때문일 것이다.

대청의 천정은 가구형식이 그대로 들어난 연등천정이며 바닥은 우물마루이다. 중앙의 가구형식은 들보위에 짧은 동자주를 세우고 이 위에 중보를 얹었다. 중보 위에는 사다리꼴의 대공이 있어서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후면 벽 중방 위에는 就惶齊라고 쓰인 현판이 걸렸다.

대청 전면의 퇴마루 좌우 양쪽에 설치한 좁은 공간의 전면으로는 각각 너비 70cm, 높이 58cm의 창을 달았다. 또 퇴마루 쪽으로는 각각 세살문 외 여닫이를 내어서 분합문을 통하지 않고 이 문으로 대청으로 드나들 수 있다.

큰 방의 서측에는 각각 반 간석의 골방을 나란히 내었다. 골방과 골방 사이는 담으로 막혀 있다. 북쪽의 골방에는 서측벽으로 문을 내어서 대청을 거치지 않고 이 문을 통하여 방으로 드나들 수 있다.

이 방에는 각기 분리된 두 개의 다락과 하나의 벽장이 설치되어 있다. 다락은 큰 방의 전 면적을 차지하는 큰 방 다락과 정재 천정의 반 간 넓이를 차지하는 정재 다락으로 나뉜다. 정재 다락은 방의 남측에 낸 외 여닫이로 통하며 이곳에는 마른 음식이나 옷감 등을 넣어 두었다. 큰 방 다락은 남측 골방 천정의 널판을 들어내고 출입하게 되어 있어서 그 출입이 대단히 불편하기는 하나 좀처럼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잇점이 있다. 그리고 남측 벽에는 상하 두 단으로 벽장을 설치하였다.

웃 방의 우측 전면에는 퇴마루를 붙였으며 방과 퇴마루 사이에는 세살문 외 여닫이를 달았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대청을 거치지 않고도 이 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큰 방에서와 같이 웃 방의 천정과 정재 상부에는 각각 분리된 다락을 설치하였으며 웃 방 바닥에는 골방 천정의 널판(가로 48cm, 너비 40cm)을 들고 출입하게 되어있다. 이 다락의 바닥에서 종도리까지의 높이는 155cm나 되며 다락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다.

이 방 남측벽에 낸 벽장의 收藏공간은 길이 145cm, 너비 38cm, 높이 55cm로 위 아래의 것이 동일하다.

큰 방과 웃 방의 남측으로 달린 정재의 면적은 각각 3칸으로 매우 넓은 편이다. 큰 방 정재의 부뚜막의 높이는 60cm이며 너비는 75cm이다.

큰 방과 웃 방의 굴뚝은 두 방의 북벽 전면에 각각 설치하였다.

안 채의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부연을 달지않은 흘처마이다. 도리는 모두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방주를 세웠다.

안 사랑채는 정면 다섯 칸, 측면 두 칸 반의 일자형으로 평면배치를 살펴보면 두 간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큰 방과 정재가, 우측에는 한 칸 크기의 웃 방이 있으며 이 방 북쪽으로 정재가 달렸다. 웃 방의 우측에는 다시 한 칸 크기의 방이 있으며 이 방 북쪽에는 마루가, 남쪽에는 골방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큰 방, 대청, 웃 방의 전면에는 반 간 너비의 퇴마루를 놓았다.

대청의 후면에도 퇴마루가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되었다. 대청에서는 후면벽 좌우에 각각 세살문 외 여닫이를 내었다. 대청과 전면의 퇴마루 사이에는 현재 용(用)자 미닫이를 달았으나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다.

웃 방 우측의 방은 웃 방의 벽장 역할을 해왔으며 따라서 바닥에는 구들을 놓지않아 불을 댈 수 없다. 웃 방과 우측 벽으로는 각각 외 여닫이를 달아 통한다.

이 방 북쪽에는 한 칸 넓이의 마루가 부설되어 있으며 북쪽과 동쪽의 벽은 개방됐다.

굴뚝은 큰 방 전면의 퇴마루 앞에 있다.

안 사랑채의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흘처마이다. 기둥은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다.

사당은 안 채의 옷 방 동북쪽 가까이 있으며 동서 12m, 남북 13.5m의 장방형 담으로 둘러있다.

사당의 전면과 측면은 모두 한 간이다. 전면의 낮은 담 가운데에는 일주문을 세웠으며 두 짝 열개의 널문을 달았다. 문의 높이는 155cm, 한쪽의 너비는 63cm이며 두께는 1.5cm이다. 그런데 이 일주문 좌우측의 기둥에는 庚申年 庚申月 庚申日 庚申時 姜太公之所作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 이것은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비방이다.

사당 대문 우측에는 지름 15cm 가량의 큰 동백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사당은 안마루와 퇴마루가 모두 우물마루이며 천정은 연등천정이다. 안마루와 퇴마루 사이에는 사분합 세살문을 달아서 필요할 때에는 서까래 끝에 달린 들쇠에 엮을 수 있도록 되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좌우의 합각벽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처마는 흘처마이며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이 집에서는 사당에만 두리기둥을 세웠다. 이 기둥의 지름은 30cm이며 높이는 225cm이다. 사당 담 안 주위에는 모란, 홍영산, 자영산, 황철죽, 왜철죽, 백철죽, 목련 등을 심었다.

부속건물들 중 바깥 변소는 바깥 행랑채의 우측에 있다. 변소의 바닥은 높아서 두 개의 디딤돌을 던고서야 올라 설 수 있다. 전면의 우측은 터 놓았으며 문은 달지 않았다. 지붕은 모임지붕이다.

이 외에 바깥 행랑채 좌측에는 머슴 변소가 있었다. 안 변소와 바깥 변소 외에 머슴 전용의 변소가 따로 있었던 것은 특이한 일이다. 머슴 변소는 50여 년 전에 철거되었다.

변소는 이 외에도 바깥 행랑채의 마부간 바깥 담 전면에도 있었으나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 들에게 불결한 느낌을 주게 되어 철거하였다고 한다.

우물은 안 채와 안 사랑채 중간지점에서 6m 북쪽에 있다. 지붕은 없으며 방틀을 설치하였다. 장독대는 장광으로 불리운다. 이것은 안 채 좌측 정재의 북쪽에 우물과 나란히 있다.

안 사랑 마당전면에는 3간의 돼지 마구(돼지우리)를 지었다. 이것은 근년에 세운 것이다. 지붕은 초가이다.

4. 건축의 환경

김씨 집이 있는 공동부락 앞으로는 東津江의 상류를 이루는 큰 냇가 서남쪽으로 흘러 내리며 뒤에는 해발 200여 미터의 蒼霞山이 있어서 전형적인 背山臨水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창하산은 그 모양이 지네(蝮蚣)와 비슷해서 인근에서는 지네산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五公里라는 행정지명도 원래는 蝮蚣里로 표기되어 오다가 일제 때에 현재의 것으로 개명되었다.

이 부락은 현재 60여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씨의 종파인 光山 金氏네는 6호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타성이다.

이 부락의 임 노인(82세)에 의하면 산외면 주위의 산봉우리 들이 平沙落鴈의 형세를 이루고 있어서 예전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곳으로 이사해 들어오는 외지의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실제로 주민의 70퍼센트가 외지민 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穴을 찾아낸 사람이 없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모두들 자기가 차지한 터에 穴이 뭉쳐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있다.

집 주인인 김 동수씨는 象頭山(해발 575m, 공동부락 북방 11km 되는 지점에 위치함)에서 흘러내린 穴脈이 물레봉(해발 380m, 이 부락 북쪽 7km지점에 위치)을 거쳐 다시 飛鳳山(해발 300m, 마을

서북쪽 6km 지점에 위치)으로 해서 지네산을 경유, 자기 집터로 흘러들었다고 한다.

김씨 집은 지네산의 주둥이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100여m 전면에 위치하며 산에서 흘러내린 물매는 일단 낮아졌다가 김씨 집터에 이르러 다시 솟아서 넓은 평지를 이루고 있다. 김씨는 자기 집 사당터에 혈맥이 뭉쳐 있어 사당의 대지가 다른 곳보다 조금 높다고 한다.

공동부락 서북쪽 1km지점에는 빗재라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김씨는 象頭山에서 자기 집으로 흘러내린 혈맥이 이곳에서 다소 낮아졌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임진왜란 때 이곳을 지나던 李如松이 이곳의 혈맥을 살펴보니 큰 인물이 날 형세이라 그 맥을 끊기 위해 빗재를 깊이 파서 혈맥을 차단하였다. 이때 이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피가 흘렀다. 그 뒤로부터 이 고개를 빗재라고 불렀으며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 음이 빗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곳에서 붉은 물이 흐른다고 믿고 있다. 김씨는 이여송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자기집에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었을 것이며 자기 집안의 부귀도 더 하였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김씨 집은 지네산의 주둥이 (동북쪽)에 해당하는 지점 150여m 전면에 위치한다. 산 가까이 있는데도 산에서 흘러 내린 물매는 중간에서 일단 낮아졌다가 김씨 집터에 이르러서 다시 솟아서 넓다란 평지를 이루고 있다.

김씨 집이 세워진 이곳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김씨의 선조는 처음에 이 마을에서 40여 리 떨어진 泰仁面 五峰里 청석골에 터를 잡기로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강아지가 뒤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곳은 강씨 네의 터라고 생각하고 물러섰다.

그가 오공리에 이르렀을 때 지금의 집터(당시에는 잡목의 숲)에서 밤이면 북소리가 세 번씩 울리면서 도깨비들이 “한 말, 두 말”하고 곡식을 되는 소리가 들리었다. 북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財運이 흥왕하리라고 믿어져 왔으며 더구나 도깨비는 곧 김씨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는 이 곳에 집을 짓기로 하였다⁴⁾

그는 집을 짓는 외에 대문 좌측 전면에 남북 32m, 동서 17m 못을 파 놓고 주위에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었다. 이 못의 깊이는 3m이며 주위에는 석축을 쌓았다. 그리고 못의 전 후면에는 위가 편평한 자연석 돌을 배설해 놓아서 이 주위의 풍광을 충분히 玩賞하도록 하였다.

이 못은 동서의 길이에 비하여 남북의 길이가 긴 편인데 그것은 지네가 지렁이를 먹고사는 동물이므로 지렁이 모양으로 파 놓은 때문이다.

이 집 대문 전면의 들판 건너편에는 案山인 獨鷄峰(해발 800m여)이 있으며 그 좌측에 火見山(해발 800m여)이 나란히 있는데 못을 판 것은 이 火見山의 火氣를 죽이려는 풍수적인 의도도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 명관은 집의 안채에서 火見山이 보이지 않도록 이 방향에 더욱 많은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는 후손에게 자기 집 터에서는 흥왕하는 기분이 12대에까지는 이어질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떠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그는 또 안채 대청 한가운데에 땅을 파고 표적을 남기어 두었다고 하면서 화재로 인하여 집이 소실되더라도 이곳을 찾아서 움막이라도 짓고 살면 집안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하였다.

4) 전북 해안 지방의 어민 들도 고사를 모실 때 “물아래 김 서방, 물 위의 김 서방”하고 물도깨비를 부른다.

안채는 어떤 도승이 설계를 하였으나 지은 뒤에 살펴보니 쓸모가 적어 나머지 채는 김명관이 스스로 나서서 지었다. 그래서 사랑채나 행랑채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깃을 치고 살고 있으나 안채에만은 짐을 짓지 않으며 간혹 제비 등속이 등지를 틀고 살다가는 새끼는 다 죽어버린다. 새가 없으므로 따라서 배도 없고 그 까닭에 자기 집안에 손이 귀한 편이라고 김동수씨는 말한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늘어 놓은 바와 같이 김씨 집을 위요한 풍수설은 그 뿌리가 대단히 깊으며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김씨집 뿐만 아니라 全南 求札郡 土面 五美里에 있는 雲鳥樓⁵⁾(柳會教씨 소유)에도 매우 짙게 나타나며 이 집에도 이른바 “金還落地” 설에 잇달은 풍수설이 거미줄처럼 엉키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朴齊家가 北學議 外編의 葬論에서 말한 “전라도 일대가 우습하게 나쁜 버릇에 물들어서 열 집이면 아홉 사람이 地官 노릇을 한다”⁶⁾고 한 것 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경북지방의 고가옥들⁷⁾에서는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필자가 조사한 이들 가옥 중에서 절반 이상인 6채의 집은 풍수설과 전혀 무관하며 나머지 집들에서는 집터에 대한 풍수설이 없지는 않으나 다만 거기서 그치었을 뿐이며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한 정도이다.

김명관은 집을 짓는 일 뿐만아니라 집 주위의 風光을 위하여도 여러가지의 고려를 베풀었다. 그는 대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60여 그루의 느티나무를 반달형으로 벌여지게 심었다. 그는 나무를 심으면서 당시에는 마을의 공동 소유이던 나무 심은 터를 한 그루에 대하여 당시 하루 임금의 열 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자기 개인 소유로 하였다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나무는 물론 그 터까지도 김씨의 소유로 되어있다.

이 나무 들은 더러 죽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40여 그루가 남아 있어 여름철 잎이 殷盛할 무렵이면 장관을 이루며 공동 부락 전부가 이 숲으로 가리워진다.

김씨 집은 외부의 환경이 것처럼 뛰어난뿐 아니라 집안의 여기 저기에 화단을 꾸미어 놓아서 내부의 환경도 매우 훌륭하다. 대문 안쪽 전면의 화단에는 紫山紅, 해당화, 설토화, 옥매화, 장미, 산당화, 채화 등을 심었으며 사랑채 후면의 화단(너비 6m, 길이 12m)에는 지름 50cm의 전나무를 위치하여 대, 목련, 동백, 산수유, 장미 등의 나무들이 들어 차 있다. 그리고 이 화단의 전면에는 길이 2m, 높이 40cm가 되는 장대석 들을 일매지게 다듬어서 세워 놓았다. 화단은 사랑채의 우측 측면(너비 1.5m, 길이 16m)에도 꾸미어져서 채화, 장미, 석류, 오엽송, 백영산, 홍영산, 수국, 왜철쭉, 장미, 자영산등이 그 아름다움을 다투고 있으며 이 외에 중문의 우측담과 안대문 전면의 담 그리고 사당 전면과 좌측에도 배풀어져 있다. 특히 사당문 우측에 있는 동백나무는 그 위용이 당당하다. 사랑우측에는 1.5km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水路를 파서 물을 끌어 들여 디근자 형으로 돌아 나가도록 도랑(너

5) 이 집은 1776년에 건립되었다.

6) “全羅一道 染惡尤甚 十室而九葬師” (李翼成 옮김)

7) 여기서 이르는 경북지방의 고가옥이란

- i) 경산군 용산면 곡란동의 최 해근씨 집
- ii)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의 손 동만, 이 희태, 손 영호, 이 종환씨 집
- iii) 경주시 교동 최 식씨 집
- iv) 영천군 임고면 삼매동 정 재영 씨 집
- v) 영천군 임고면 선원동 정 연재 씨 집
- vi) 의성군 단촌면 후평동 김 동주 씨 집
- vii)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황 의석 씨 집 등의 열 집을 가리키는 것이다.

비 50cm, 길이 9m)을 파 놓았다. 이 집이 건축될 당시부터 이룩되었던 이러한 造景的인 환경은 이 집의 특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하면 경북 지방의 주택 들은 환경을 미화하는 데에는 대체로 등한해 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방의 주택에서는 대체로 언덕이나 비탈진 곳에 터를 잡아 대지 자체가 너르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안에 김씨 집처럼 화단을 아름답게 꾸민 집이 없으며 몇몇 집에서는 단지 사당의 전면에 관상목들을 심었을 뿐이다.

5. 기 능

① 바깥 행랑채

대문 좌측의 문간방에서는 청지기에게 달린 하인이 기거하였다. 그는 청지기의 심부름을 담당 하였다. 이 방에서는 외래객의 마부나 하인 또는 동점장수 들이 묵어가기도 한다. 천정은 샷갓천정이며 바닥은 흙바닥에 자리를 깔았다.

청지기는 문간 사랑방에서 기거하였다. 그는 주인집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며 종들을 지휘감독 한다. 또 주인의 모든 대외적인 일을 그를 통하여 처리 하였다. 특히 그에게는 그해의 농사 사정을 감안하여 賭租를 조정하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賭地人들은 주인보다 그를 더 어려워 하였다. 그에게는 논 6,000여 평을 주어서 보수에 대신하였다. 가족이 여럿 달린 경우에는 주인이 집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는 자의대로 주인을 바꾸어 다닐 수 있었으며 그때에는 땅과 집을 주인에 반환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을 보아오던 청지기가 늙거나 병들어 사망하게 되면 주인은 땅과 집을 그의 가족에게 물려 주었다. 청지기의 신분은 평민이었으며 나이가 비교적 연만한 사람이라야 환영을 받았다. 이 청지기 제도는 일제 중엽에 이르기까지 김씨 집에서 존속되었다. 문간 사랑방에서는 외래객으로서 주인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유숙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오양간과 정재 사이가 담으로 막혀 있었으며 머슴 변소나 방아실채 등에는 정재의 문을 통하여 드나들었다.

오양간은 賭租를 신고한 소작인들의 소가 비를 만나게 되었을 경우 이 곳에서 비를 갖게하기 위하여 지어둔 것으로 김 씨 집에서는 소를 먹인 일이 없었다.

대문 좌측의 마판은 전면과 좌측 담의 반 간이 터져 있다. 이곳에는 내객이 타고온 말을 세워 두었다.

마판 우측의 곡간에는 나락 250여섬을 갈무리 하였다. 바닥은 흙바닥이며 천정은 샷갓천정이다.

2 간의 마부간에는 주인의 말들을 두었다. 이 마부간은 이 외에 파수간의 역할을 겸하였다. 밤이 되면 하인 들이 남측벽 중방 위에낸 살창 위에 총(화승총)을 걸어놓고 담 밖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이 창은 길에서 김씨집 대문으로 들어오는 골목(좌우에는 탱자나무를 심어 울을 삼았다)을 감시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있다. 김씨 집 대문 전면에는 길가에 이르기까지 너른 마당(80여 평)을 꾸미고 주위에 탱자나무 울을 둘러 놓아서 김씨 집 대문에 이르려면 앞에서 말한 좁은 골목을 통과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이 골목 입구에 문을 세우고 역시 하인들이 밤새도록 파수를 섰었다 한다. 이로써 보면 대문 전면 마당가에 심은 탱자나무 울은 바깥 행랑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좁은 골목을 통해서만 대문에 이르도록 한것은 외부의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김씨 집에서는 또 저

녀이 되면 하인에게 담 주위에 마름쇠를 던져 놓도록 하였으며 대문과 중문, 안 대문 좌우편에는 박달 나무 몽둥이를 걸어 놓았다. 이 외에도 또 사당 뒷편에 바깥 담을 뚫고 비상문(높이 120cm, 너비 80cm)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하여 호지집(이에 대하여는 “호지집”의 항에서 설명한다)으로 대피하도록 하였다. 이 문 밖은 바로 호지집의 안마당이 된다. 위에 설명한 여러가지로 미루어보면 이 집의 외적에 대한 방비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지역적인 특성이라기 보다는 김씨 집 특유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전라도의 다른 집에서도 이러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경북의 손 동만 씨 집에서는 80여년 전까지 담을 두르지 않았다고 한다.

마부간 우측의 아래 채 대청에는 쌀섬들을 두었다.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다.

아래채 방에는 하인들이 기거하였다. 천정은 샷갓천정이며 바닥은 흙바닥이다.

② 사랑채

사랑방에서는 이 집의 최연로자가, 사랑 아래방에서는 젊은 주인이 기거 하였다. 사랑방의 주인공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하여 안 채의 큰방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바뀌는 일이 없다. 살림의 주도권도 이와 같다. 임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한도 아들에게 물려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구례 雲鳥樓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러나 경북지방에서의 관습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이 지방에서는 아들이 장년에 이르러 살림을 이끌어 갈만 하다고 인정되면 살림권을 물려 주고 노인은 행랑방으로 물러나 앉는다. 따라서 집안의 모든 경영은 장년기의 아들이 담당해 나가는 것이다.

김씨 집에서의 어린 신랑(아랫 사랑방의 주인공)의 신방 출입은 어느 정도의 통제가 가하여 졌으나 노인이 아들에게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은 노부인에게, 그네는 다시 며느리에게 일러서 비로소 며느리가 남편의 출입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에서는 조부가(그가 없을 때에는 부친이)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 간격으로 길일을 택해 주었을 뿐이며 대체로 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20여 세에 이르러 통제를 받지 않게 되어서도 아내 방에는 깊은 밤중에 들어 갔다가 이른 새벽에 되돌아 나와서 다른 이의 눈에 띄이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비록 자기 아내의 방일지라도 그 출입이 타인, 더구나 집안의 아랫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더 할 수 없는 큰 수치로 여기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 동수씨 집에서는 출입 자체를 꺼린 일이 없으며 집안의 아랫 사람들 까지도 젊은 주인의 행방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구례 雲鳥樓에서는 어머니가 40 안쪽에 홀몸이 되었을 때에는 출입을 지극히 은밀히 하였으나 어머니가 40 고개를 넘어서면서는 무관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라, 경상 지방을 막론하고 새댁의 방에는 바깥 쪽에 쪽문을 내어 남편들은 대청을 거치지 않고 이 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으며 사랑방에서 이곳까지는 중문이나 안 대문이 걸렸을 경우에도 드나들 수 있도록 비상통로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사랑 다락에는 돈 꾸러미와 중요문서 등을 넣어 두었다.

사랑방 전면 우측에 있는 방(가로 210cm, 세로 147cm, 천정높이 230cm)은 사랑방에서 기거하는 노인의 몸종인 복직이가 사용하였다. 복직이로는 종의 아이들 중에서 영리하고 용모가 반듯한 15세 전후의 소년이 뽑히었다. 복직이는 보통 두명이었으며 그들은 노인의 잔심부름을 전담하였다.

③ 안 행랑채

좌측의 안 변소는 변소 자체를 건물 속에 포함시켰을뿐더러 더구나 그 넓이가 두 칸이나 되었던

(현재 한 간은 철거되었다)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로 변소에 대한 개념이 경북지방과는 대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북지방의 안 변소는 정지의 좌측담 구석진 곳에 숨겨 붙이거나 초가를 따로 세우기는 하였어도 한 사람이 겨우 운신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특히 출입문을 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바깥 변소의 경우도 안 변소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더구나 바깥 주인과 하인들의 전용 변소가 따로 있었던 것은 김씨 집의 특성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안 대문 우측의 매간에는 여러 종류의 맷돌 들과 기름틀 등의 연장 들을 두었다.

아래 곡간에는 김치와 술 등을 갈무리 하였으며 김치 곡간이라고도 불리운다.

웃 곡간에는 옹기그릇 등속과 백미가 담긴 큰 독 들을 넣어 두었다. 웃 곡간 북쪽에 있었던 어린 소년의 방은 어린 소년의 책방으로 쓰여졌으며 노인이 돌아갔을 때 이곳에 草墳을 모시기도 하였다. 바닥에는 겨릅대로 짠 발을 깔고 관을 올려 놓았으며 관을 위에는 짚으로 이영처럼 엮어 덮었다. 초분은 이방에 석달간 모셨으며 선산에 다시 삼 년간 두었다가 묘지에 매장하였다. 김씨 집에서는 김 동수씨의 고조부까지 초분의 장례를 지내었다.

④ 안 채

안 채의 큰방 주인공(시어머니)은 사랑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임종하기 전까지는 며느리에게 방을 내어 주지 않는다. 손주며느리를 보게 되었을 때에는 웃방의 시어머니는 큰방의 노할머니와 합류한다. 이것은 새댁이 시집온 뒤 5~6년이 지나 살림의 내용을 알만하게 되면 그네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기는 며느리의 방으로 물러나는 (손주 며느리가 있을 때에는 행랑방으로) 경북지방의 慣行과 매우 대조적이다. 구례 雲鳥樓에서는 김씨 집과는 조금 달리 바깥 노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어머니도 자기의 방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⑤ 안 사랑채

이 건물은 김명관이 자기 집 건축 기간 동안 자기와 목수들의 임시적인 거처를 위하여 지었던 것이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이 건물의 구조나 쓰여진 제목들을 살펴볼 때에 수궁이 간다.

그러나 그 동기야 어떻든 간에 이 건물은 안 사랑채의 구실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안 채의 여자들은 명절 때에는 이곳에서 놀이를 벌이었다. 안 손님들은 여기서 유숙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출가했던 딸이 근친이나 해산을 위해 천정에 올 경우에도 안 행랑채에서 머물었다. 경북 월성의 이 회태씨 댁에는 해산할 딸을 위한 두 간 방이 따로 갖추어져 있기는 하나 김씨 댁의 안 행랑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성들을 위한 김씨 댁의 이와 같은 배려는 특기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⑥ 사 당

전라도 지방의 사당은 경상도 지방의 그것에 비하여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당에 대한 관심도에도 큰 차이가 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사당에만은 매우 정성들여 치장하며 태도 역시 정중하며 근엄한 품이 마치 그 사당 안에 그들의 선조가 살아 있는 듯한 태도이다. 이 지방에서는 사당에 단청을 올리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神門을 세우기도 한다.

이에 비하면 전라도 지방에서는 “사당은 사당 자체로서 존재할 뿐”으로 경상도 지방에서 처럼 神靈한 처소로서가 아니라 집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건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싶다.

사당에 대한 태도 또한 이 두 지역이 이렇듯이 다르다.

⑦ 호지집

호지집이란 주인에게 예속된 노비 들이 살던 집으로 경북지방의 가랍집도 이와 같은 기능을 지닌 것이다. 식구가 달린 노비들은 각기 자기들에게 배당된 호지집에서 생활하였으며 아침 일찍부터 주인집에 들어가 일을 보아 주고 저녁 늦게 호지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들은 주거를 호지집에서 하였을 뿐으로衣食 등은 물론 주인집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김씨 집에는 담 주위를 둘러가며 모두 5채의 호지집이 있었으나 현재는 4채만 남아있다.

경북지방의 한 두채에 비하여 김씨 집에서 이처럼 많은 수의 호지집을 자기 집 주위에 둘러 세웠던 것은 노비의 수가 많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을 것이나 그보다는 호지집들로 하여금 김씨 집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당 뒷편의 바깥담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이 문을 나서면 바로 호지집의 안마당이 되는데 이 집에는 노비들 중 충성심이 가장 깊은 이를 살게 하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호지집의 규모는 일정하지 아니하나 각각 한 간씩의 정지와 방 둘이 달린 것이 일반형이다. 지붕은 모두 초가이다. 이 호지집 들은 현재 김씨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남에게 세를 주고 있다.

⑧ 생활 풍속

뒷날의 참고를 위하여 이 집의 예전 생활 풍습을 간단히 적어본다. 50여년 전에는 안에서 부리는 사람으로 부역의 잔심부름을 담당한 14~5세 가량의 정재 담사리(남자) 2명과 이미 설명한 복직이 2명, 여종의 아랫 사람인 시비 4~5명과 마부 1~2명, 청지기 등이 있었다. 여자의 신분이 평민이더라도 종과 혼인하면 종의 신분이 되었으며 종의 가족들도 물론 주인 집의 비복이 되었다. 비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10냥(논 2,000평의 값)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비복의 자식 들이 불어나서 수가 많아질 때에는 딸이 출가하거나 자손 들이 살림을 날때에 몇명씩 나누어 주었다.

김 동수씨의 모친은 출가하고 (17세 때) 16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 근친을 갔으며 그 뒤로 다시 친정에 간일이 없으므로 이것은 그의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친정 발걸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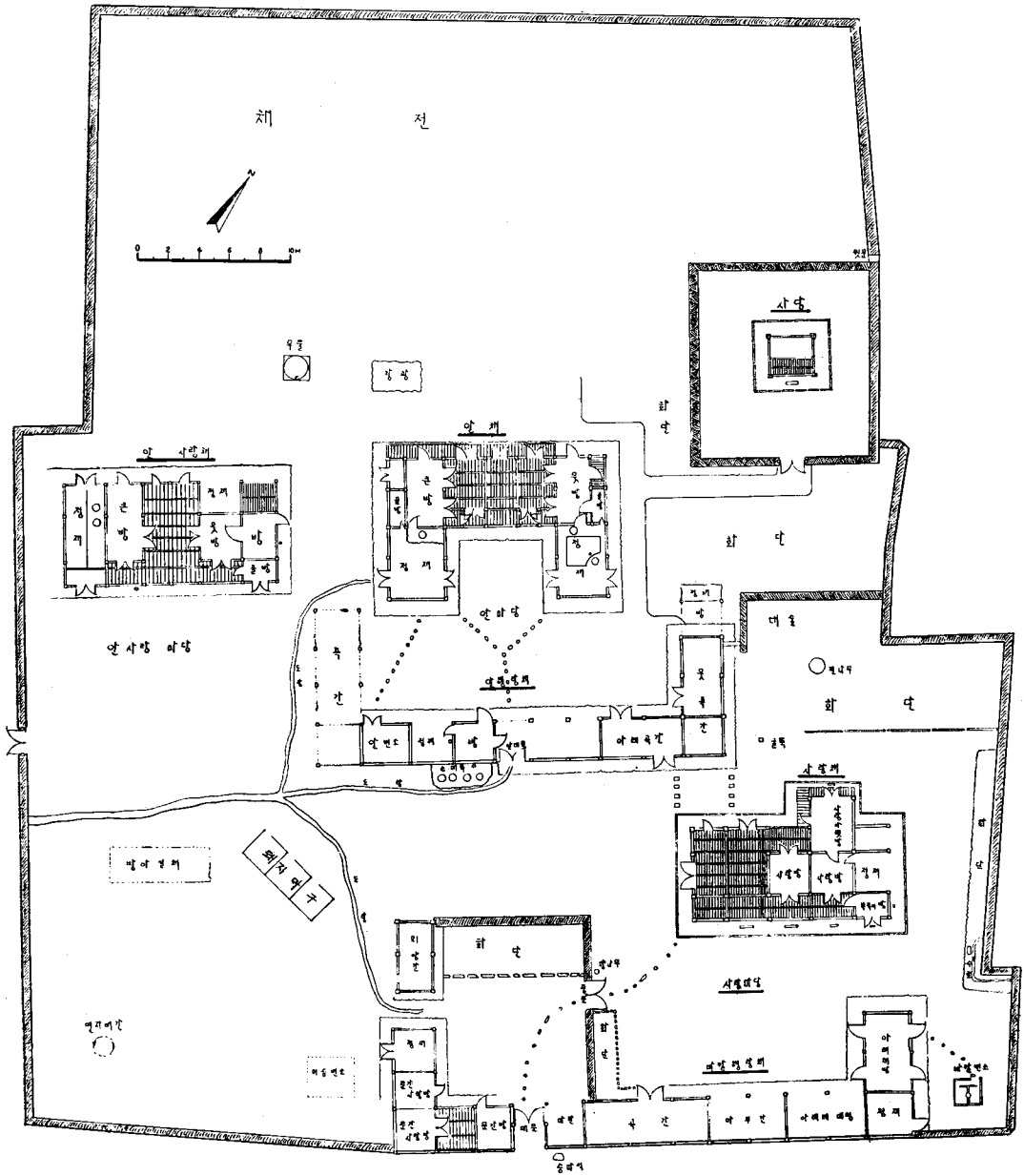
김씨의 부인은 결혼 일년만에 근친을 갔었으며 그 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네 번 다녀왔다. 사위는 처가집에 자주 가는 법이 아니어서 김씨 자신은 지금까지 7~8차례 다녀왔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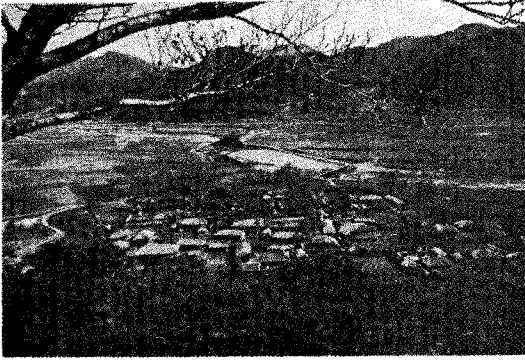
음식은 모두 여종들이 준비하며 며느리는 그들이 만든 음식으로 상을 차릴뿐이다. 며느리는 사람에게 상을 내보내고(이를 사랑진상이라 부른다) 자기 상을 받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결상하는 일은 없다.

아이는 3~4세까지는 어머니가 기르나 그 뒤부터는 애기 담사리라고 불리우는 15세 내외의 종이 돌본다.

부부가 젊었을 때에는 아이가 4~5세가 되면 조부모들이 자기들 방으로 데려 갔으며 7~8세가 되면 클방선생에게 맡겼다. 아이들에게는 산어매(어미)를 붙여 두었다. 산어매는 반드시 무당일 필요는 없으며 수명 장수를 비는 德談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였다. 산어미는 아이의 수명 장수를 빌어주고 두둑한 사례를 받았다. 여자들은 여름이면 안채 뒤에 큰 독을 가져다 놓고 물을 부은 다음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였다. 목욕은 언제나 깊은 밤중에 하였으며 여름을 제외하고는 추석 무렵과 설달 그믐께 그리고 2월이나 3월에 각각 한번씩 하는 정도였다.

전북 정읍 김동수씨 집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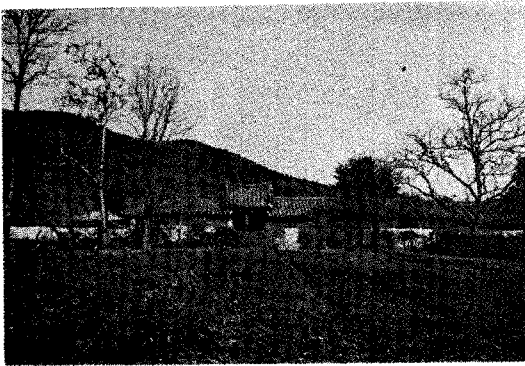




① 김씨 집이 있는 공동부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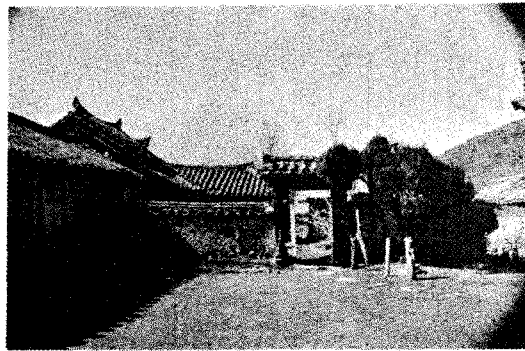
② 김씨 집 전경(후면에서)



③ 김씨 집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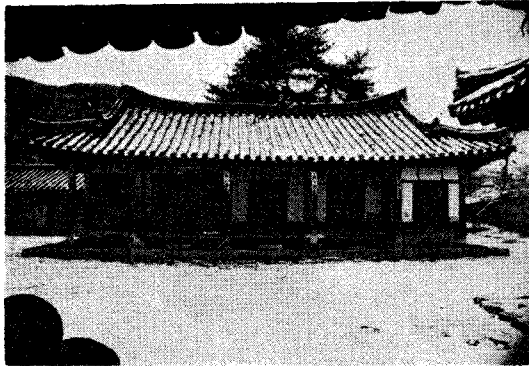
④ 대문과 바깥 행랑채



⑤ 바깥 대문과 중대문



⑥ 바깥행랑채(사랑에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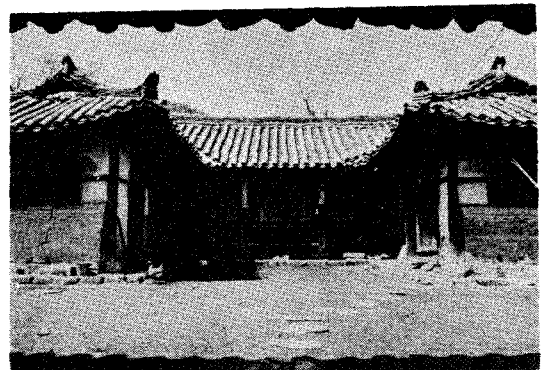
⑦ 사랑채



⑧ 사랑채의 좌측 측면



⑨ 안 행랑채



⑩ 안채



⑪ 안채 대청의 가구 형식



⑫ 안 행랑채